

아베다의
전파단의
주편

리시리 利尻島

왓카나이에서 페리로 약 1시간 40분을 달리다보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산기슭 군데군데 지난 겨울 쌓인 눈이 아직 남아 있는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산은 바로 리시리의 상징인, '리시리후지'로 불리는 리시리산입니다. 리시리산은 표고 1,721m로 산 근처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산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산기슭에는 침엽수림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삼림대가 해안선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고산식물이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며 앞다투어 피기 시작하는데, 매년 6월-8월에는 일본 각지는 물론 외국관광객들도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고산식물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특히 리시리산을 오르기 위한 등산객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띕니다.

리시리는 다시마 산지로도 유명한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리시리콘부'라는 다시마는 고급 다시마로서 일본의 관서 지방을 중심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 페리

왓카나이와 리시리섬, 레분섬을 왕복하는 페리의 모습.



← 오라도마리누마 늪

붉은 가문비나무 원생림에 둘러싸인 늪으로 날씨가 좋은 날에는 늪에 비친 리시리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시리산 →
리시리 섬의 상징 리시리산. 리시리를 둘러 다양한 각도로 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섬 여행의 별미! →

갯 수확한 싱싱한 성게를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 히메누마 늪

원생림에 둘러싸인 주위 1km의 넓은 30분 정도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고산식물!

리시리콘부 →

다시마 중에서도 고급품에 속하는 리시리의 다시마.



【 리시리와 레분의 이모저모 】

◇ 리시리(利尻)의 개요

- 면적: 182.11 km²
- 인구: 5,371명(2010년 기준)
- 주요산업: 리시리콘부(다시마) 양식과 성게 등의 근해어업 중심.
- 기후: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는 작은 편이지만 바람은 강한 편.
- 지명의 유래: 아이누어로 높은 섬을 의미하는 '리이시리'에서 유래됨.
- 교통: 리시리공항과 신치토세공항 노선간 전일본항공의 여객기가 운항중이며, 왓카나이시와 리시리간 페리가 운항중임.
- 축제 <리시리 우키시마 축제>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리시리 최대의 축제로 8월 5일-6일 양일간에 걸쳐, 가마행렬이 이어지고 노점상이 들어서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리시리 관광협회 홈페이지

<http://kankou.rishiri.jp/index.html>



◇ 레분(礼文)의 개요

- 면적: 81.97 km²
- 인구: 2,992명(2011년 기준)
- 주요산업: 임연수어 등의 수산업과 관광산업이 주됨.
- 기후: 리시리와 마찬가지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지는 않지만, 바람이 매우 강한 편.
- 지명의 유래: 아이누어로 앞바다 섬을 의미하는 '레폰시리'에서 유래됨.
- 교통: 현재는 왓카나이와 리시리를 왕복하는 페리만 운항되고 있음.
- 축제 <레분 후루사토 축제>
섬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레분 최대 축제로, 야외매주가든, 음악공연, 불꽃놀이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축제는 매년 8월 초에 개최됩니다.

레분 관광협회 홈페이지

<http://www.rebun-island.jp/>

◎리시리 레분 사로베쓰 국립공원

(利尻・礼文・サロベツ国立公園)
일본 최북단의 국립공원으로 1974년 지정되었으며, 리시리와 레분은 지역 대부분이 이 국립공원에 속합니다.

레분 礼文島

바다
아이
관광객매년

꽃의 섬이라 불리는 일본 본토 최북단의 유인도 레분 섬.

레분은 한랭건조한 기후 조건과 지리적인 고립성으로 난지 식물이 침입하지 않아 한지 식물이 고스란히 서식하고 있으며 해발 0미터부터 고산식물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 레분에서만 분포하고 있는 개불알꽃의 변종인 '레분아츠모리소'는 6월에만 볼 수 있는 종으로, 여름이라고 하기엔 아직은 쌀쌀한 이 시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레분에 간다면 꼭 해야할 것 중의 한가지는, 고산식물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길을 걸으며 레분의 대자연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섬의 최북단 스크론티사키 꽃에서 출발하는 4시간, 8시간 코스와 남쪽의 가후카항구에서 출발하는 모모이와 바위 코스 등 다양한 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어 트래킹 초보자도 즐기며 걸을 수 있습니다.

모모이와 바위 →

그 모습이 복숭아(모모)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이 주변에도 다채로운 고산식물이 서식합니다.



스크론티사키 꽃 →

섬의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맑은 날에는 러시아 사할린과 레분섬의 무인도 도도지마도 바라다 보입니다.



← 스카미사키 꽃

바닷물이 너무나도 투명해 섬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바다라고 일컬어집니다.



레분아츠모리소 →

레분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6월 한달 동안만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성게 →

레분하면 우니! 리시리다시마를 먹고 자라 그 맛이 더 일품인 성게.



↑ 항상 녹색인 신호등

섬의 학생들의 교통 교육을 위해 설치한 신호등이지만 통행자가 적기에 언제나 녹색인 신호등.



← 임연수어

레분의 근해에서 기른 맛있는 임연수어가 수확되어 찜은 물론 회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 Boys, Be ambitious!

홋카이도 대학 北海道大学



정문

삿포로역에서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일본 명문 국립대학의 하나인 홋카이도대학. 홋카이도대학은 삿포로 중심가에 위치해 있지만 드넓은 교정 안에 들어서면 학교가 아닌, 마치 수풀림에 들어와 있는 착각마저 들 정도의 자연경관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은행나무 길
1939년에 심어졌으며 가을이 되면 황금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명소.

이곳 홋카이도대학은 1876년에 세워진 '삿포로 농학교'가 그 시초로 거친 황무지였던 홋카이도를 개척할 농업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일본에서 최초로 세워진 고등농업기관이었습니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어봤을 낯익은 이 말은 미국 매사추세츠주립 농과대학 학장 출신으로 당시의 홋카이도대학에 초빙된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William Smith Clark)'박사가 홋카이도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초대 부학장이었던 클라크 박사는 10개월간 이곳에 머무르면서 식물학과 자연과학을 가르쳤으며,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홋카이도대학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홋카이도대학은 현재 12학부, 18대학원에서 약 18,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부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내실있는 알찬 대학을 만드는 게 학교운영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연구자와 유학생에게 매우 개방적인 홋카이도 대학에는 현재 해외 84개국 지역의 유학생 1412명이 재적해 있습니다. 유학생 비율은 중국인이 764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 유학생이 162명으로 두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포함한 7개국 17개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중이며, 그중 한국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와 전북대 등 4개 대학 및 기타 대학의 학부간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삿포로 농학교 제2농장
한채의 낙농가를 이미지해 1876년 세워졌으며,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됨



사쿠슈고토니 냇가
그 옛날 학교 안을 흐르던 강을 재현해 2003년에 만들어진 냇가.



후루카와 기념강당
홋카이도 내에서 최초로 지어진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 건물로 1909년에 세워짐.

8월 2일, 홋카이도대학 서울사무소 개소식!

홋카이도대학의 서울사무소의 개소식이 8월 2일 열립니다. 중국 베이징에 이은 두번째 해외사무소로 지난 4월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더욱 많은 한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길잡이가 될 서울사무소는 학생교류 및 연구자교류의 촉진, 산학연계 지원 및 홋카이도대학 한국인동창회의 활동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개소식을 기념해 지난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인 스키 아키라 교수의 특별강연회도 열립니다. 8월 2일과 3일 양일간 서울문화회관과 경기과학고에서 '노벨화학상의 길', '과학이 미래를 개척한다'라는 각각의 주제로 강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클라크박사 동상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명언을 남긴 홋카이도 초대 부학장을 지낸 클라크 박사.



포플러 길
1890년대 방풍림으로 처음 홋카이도에 심어졌으며, 홋카이도대학 명소 중 한곳!

후세에게 전해줄 보물

홋카이도 유산

★ 그 일곱번째 이야기

구시로(釧路), 네무로(根室) 지역

❖ 기리타부 습원 - 하마나카초(浜中町)

습원의 일부 중 '토탄지형성 식물군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백 종류의 고산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두루미와 백조 등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마슈코 호수 - 데시카가초(弟子屈町)



아칸 국립공원에 있는 원시의 자연으로 둘러싸인 신비의 호수로, 세계 유수의 투명도와 아름다

운 유백색의 안개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홋카이도에서 호수·늪·산악이 어우러진 경관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 곤센대지 격자모양 방풍림

- 나카시베쓰초(中標津町)

폭 180m, 총 길이 643km의 수림지대는 방풍효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척시대의 식민지 구획을 나타내는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곳입니다.



❖ 노쓰케칸도와 저인망성

- 베쓰카이초(別海町), 시베쓰초(標津町)



길이 26km의 일본 최대의 사취로 사쓰몬시대의 수혈식 주거도 남아 있습니다. 에도시대에는 구나시리

(國後)로 통하는 요충지로서 통행소가 설치되어 북방 경비의 무관들도 주재했습니다. 홋카이시마에비(새우) 잡이에 쓰이는 저인망성은 노쓰케칸도의 풍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제공-홋카이도 유산 협의회

저가항공사 진에어 「인천-신치토세」 구간 정기편, 7월 15일 취항!

지난 7월 22일 진에어 김재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기자단이 홋카이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진에어는 7월 15일 '인천-신치토세'간 정기편을 취항하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 왕복 2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사장은 "홋카이도는 최고의 여행지로 자연이 아름답다. 특히 가을철 단풍이 운치가 있으며, 여름과 겨울



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어서 가족여행으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동일한 대지진의 영향으로 주 2회 왕복으로 운항을 시작했지만 하루빨리 매일 운항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협조 부탁한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인천-신치토세' 구간은 현재 대한항공이 매일 2회, 이스타항공이 주 2회 운항중에 있습니다.



※ 아카레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 +81-11-204-5114 FAX : +81-11-232-4303)